경제혁신 3개년 계획 —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대한민국 제도약의 힘, 창조경제

경제혁신
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'16년 2월 4일(목) 09:00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통상정책총괄과 서덕호 과장(044-203-5620), 서미주 사무관(5625)

산업부-상무관 수출전략회의 개최

- 현지 해외시장 메신저로서 상무관 역할 요청 -
- 중소·중견기업 밀착 지원, 수출 성공사례 조기 마련임무 부여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2.4(목) 09:00 우태희 2차관 주재로 **「산업부-상무관 수출전략회의」를 열었다.**

○ 회의에서 미국·중국·일본 등 **주요 수출국별 기회요인과 대응전략**을 집중 논의했다.

▶ **(중국)** 한중 자유무역협정(FTA) 발효 2년차, 안정적 소비시장 성장, 높은 한국 소비재 선호의 기회요인을 활용하여, 한중 FTA 종합상담회(2월, 서울)를 통한 FTA 선제적 활용, 한국 우수상품전 등 개최로 내수시장 진출 추진 계획

▶ **(미국)** 낮은 실업률, 민간소비 증가 등 양호한 경제성장이 예상됨에 따라, 소비재, 부품소재, 조달시장 등 유망시장별 집중적 수출 지원활동 전개

▶ **(일본)** 일본에 대한 관계개선을 활용해, 아베노믹스 재정확대 전략에 따른 5대 성장분야*에 대한 맞춤형 특화 마케팅, 자동차 부품 조달시장 진출, 한류 재점화를 통한 소비재 수출기회 확대 전략을 제시

* 전력기자재, 사물인터넷(IoT)·정보보안, 의료·바이오, 후쿠시마 제염설비·방호, 건설기계 부품

□ 토론에서는 **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방안**을 중점 논의했다.

○ 중국, 인도 등 신흥국에서 급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활용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코트라: KOTRA)와 협업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플랫폼 진출도 확대하기로 했다.

○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활용도 논의했다.

□ 우 차관은 **작금의 수출부진은 수출 품목·시장·주체·방식·지원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서만 해결**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, 상무관에게 수출촉진 임무를 부여했다.

① 먼저, 해외현장의 최일선에서 **"시장의 흐름(트렌드)을 빠르게 전파하는 메신저"**로서 상무관의 역할을 강조했다.

- 소비재, 서비스, 기술·브랜드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,
- 농식품, 의약품, 의료서비스, 콘텐츠, 화장품 등 유망품목을 선별하여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자 역할을 주문함

② 상무관이 **"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 전담창구"**로서 전력투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.

- 중소·중견기업이 수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**해외 교포 무역인, 세계한인무역협회 등 네트워크 매개자 역할**을 강조

③ **"수출 지원방식도 현장에 맞게 전환"**할 것을 요청했다.

- 구태의연한 관행에서 벗어나, **온라인 유통망 활용, 금융 서비스 개선** 등 수출과 직결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을 당부

④ **"해외 수출지원체계를 범부처 소관 유관기관과 협력시스템"으로 보강**할 것을 제안했다.

- 산업부 소관 품목뿐만 아니라 식품, 의약품 등 각 시장별 수요에 맞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, 보건산업진흥원 등과 해외에서 협업체계 마련할 것을 당부

⑤ **기업 애로사항**에 대해 **현지 대사 중심으로 상대국 정부를 설득·해결**하는 적극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

□ 우 차관은 현 상황이 절박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, **"성과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"**할 것을 상무관에게 당부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서미주 사무관(☎ 044-203-56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2-04 10:01:48

붙임 1 산업부-상무관 수출전략회의 개요

□ **회의 개요**

○ **일 시** : '16. 2. 4(목) 09:00 ~ 11:00

○ **장 소** :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

○ **참석자 : 총 44명**

- **산업부 2차관(주재),** 통상정책국장, 통상협력국장, 무역정책관, FTA정책관, FTA교섭관 등 6명

  * 배석: 통상정책총괄과장, 통상협력총괄과장, FTA정책기획과장, 미주통상과장, 구주통상과장, 동북아통상과장 등

○ **상무관** : 29개국 상무관 38명

□ **세부 프로그램**

시 간		주요 내용	비 고
09:00-09:10	10′	◆ 모두발언	산업부 2차관
09:10-09:25	15′	◆ '16년 산업부 업무계획 - 한중 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	윤갑석 무역정책관
09:25-09:55	30′	◆ 상무관 발표 - 주요국 경제동향 및 수출·투자 전략	중국 북경 (이호준 국장) 미국 워싱턴 (김창규 국장) 일본 (유정열 국장) OECD (박상희 과장)
09:55-10:55	60′	◆ 토론	상무관 전원
10:55-11:00	5′	◆ 마무리발언	산업부 2차관

붙임 2 우태희 차관 모두발언

□ 반갑습니다.
오늘 상무관회의 참석을 위해 먼 길을 오신 여러분 모두를
진심으로 환영합니다.

* 참석자(38명) : 산업부(31명), 기재부(1명), 국토부(2명), 중기청(1명), 특허청(3명)

□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산업부 뿐만 아니라
국토부, 기재부, 중기청, 특허청에서 파견나간
상무관들이 함께 모여 수출 회복방안을
논의하게 되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.

□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,
상무관(商務官)은 그 역사가 매우 깊습니다.
48년에 상공부가 산업·무역정책을 이끄는 동안
상무관들은 해외 일선에서 수출을 견인해왔습니다.

□ 이후 상공부가 상공자원부, 통상산업부
산업자원부, 산업통상자원부로 기능이 변천해오면서,
상무관의 역할도 수출뿐만 아니라
자원개발, 투자, 통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
□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,
상무관의 기본 뿌리로 돌아가
수출 확대라는 절체절명의 사명감을 다시 한 번
마음속에 새겨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.

□ 올 해 수출여건은 녹록치 않습니다.
지난 1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△18.5%로
매우 힘든 상황입니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2-04 10:01:48

무엇보다도, 단기간내 수출이 회복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
점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.

□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여파로
1998년 수출이 2.8% 감소했었고,
2000년 IT 버블 붕괴에 따라
이듬해 수출이 12.7% 감소한 바 있습니다.
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
수출 13.9% 감소라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바 있습니다.

□ 하지만 최근의 수출부진은 외부충격뿐만 아니라
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,
중국 시장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,
석유화학 등 소수 품목에 집중하는 등
우리 내부의 안이함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.

□ '77년에 수출 100억불을 달성했던
그 때의 절박한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.

□ '73년 제1차 오일쇼크와 함께
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으면서
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등 힘든 여건이었습니다.
우리 주요 수출품인 섬유류, 신발류, 금속제품 등이
선진국 시장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수출이 매우
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.

□ 하지만, 年 37%의 높은 수출성장률을
기록하면서 70년 수출 10억불에서
7년만에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는 신화를 만든 바 있습니다.
이 모든 것이 "수출입국(輸出立國)"이라는

하나의 목표를 향해
모두 힘을 합쳤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.

□ 70년대 경공업 제품이 보호무역주의로 수출이 막히자,
80년대 중화학공업으로 산업을 재편해나갔습니다.
산업구조조정과 수출정책이 양날의 톱니바퀴처럼
잘 맞물려 돌아갔습니다.

□ 올 해 산업부도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출부진 타개에
全 부서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.

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
미래 신산업 먹거리를 창출할 것입니다.
[illegible] 수출 품목, 시장, 주체, 방식, 지원체계를
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.

□ 상무관들도 해외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
함께 뛰어줄 것을 요청합니다.
본부와 상무관간 협업을 통해
수출 회복의 모멘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.

□ 첫째, 수출 품목을 소비재, 서비스, 기술·브랜드로 다변화하고,
농식품, 의약품, 의료서비스, 콘텐츠, 화장품 등
성장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.
중동, 인도 등 새로운 시장 개척도 필요합니다.

이를 위해 상무관은 해외 현지 시장의
트렌드를 전파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2-04 10:01:48

피터 드러커는 「변화 리더의 조건」에서
경영의 유행, 근본적 변화를 알려주는 징후는
비고객(non-customer)에서 나타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.

중국의 목욕용품, 베트남의 스파용 화장품 등
작지만 놓치고 있는 시장은 없는지,
현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품목과 시장 발굴에
앞장서 주길 당부합니다.

□ 둘째, 중소·중견기업이 수출 주역으로
성장하는데 함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.

상무관은 중소·중견기업의 전담창구라는 마음가짐으로
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뛰어주길 바랍니다.
해외교포무역인, 세계한인무역협회 등을 활용하여
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한 중소·중견기업을 위해
전심전력을 다해주십시오.

□ 셋째,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 확대 등
수출 방식도 대폭 전환해야 합니다.

과거의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
각 시장에 적합한 수출 지원방법에 대해
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.

현지 판매망이나 온라인 유통망의 활용,
금융 서비스의 개선 등 기업의 수출과 직결될
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.

□ 넷째, 수출 품목의 범위를 타부처로 확대하고,
분야별 수출진흥기관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.

각 시장별 수요에 맞게
수출 지원분야를 식품, 의약품 등으로
폭넓게 파악하시고,
aT, 보건산업진흥원, 콘텐츠진흥원 등
타부처 소관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통하여
효과적으로 지원해나가야 합니다.

□ 다섯째, 기업의 수출과 현지 경영활동을 가로막고 있는
외국의 불합리한 제도, 관행 등을
개선해야 합니다.
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
현지 대사 중심으로 상대국 정부를 설득하여
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마지막으로 상무관 여러분,
본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,
성과 중심으로, 그리고 속도감 있게
수출확대 임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.

□ 올 해 수출 회복은 여러분 어깨에 달려있습니다.
부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2-04 10:01:48